

복지기관별 종사자의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과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

박 정 윤(중앙대 교수) · 장 온 정(목원대 전임강사) · 안 누 리(중앙대 석사)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이 가족에 대한 인식과 한부모가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종사자들의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이 지원기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복지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방법, 대상, 지원내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202명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가족 의식’의 정도측정을 위해 가족이념과 다양한 가족 수용성에 관한 1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은 한부모가족 어려움,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수행 정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등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근무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게 한부모가족 대상 단독 사업 실시 여부와 사업 대상, 서비스 제공 방법, 제공 프로그램의 4가지 영역 총 8개의 문항을 가족학 전문가의 자문으로 통해 직접 개발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혈연중심의 전통적으로 가족을 인식한 반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긍정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서비스 제공 대상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조적 가족기능 수행능력이 낮고, 사회적 편견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별 종사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기관별 단독사업실시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관별 프로그램의 내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사업대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관은 ‘이혼가족-부/모자’가족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타기관의 경우는 ‘미혼부/모가족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기관별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서비스제공보다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의 단순한 일회성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기관 혹은 기관장의 취지나 비전, 기관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제공되어 서비스의 수준과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지역별 특성과 지역 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욕구파악과 이들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종사 기관의 특수성, 전문성을 살린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보다 실효성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